

## 불황 고통기 출판키워드 변화, IMF '아버지' ⇒ 2008 겨울 '어머니'

□ 국내 유명 서점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똑같이 고통 받았던 1998년과 2008년 출판계의 키워드'가 가족원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언론 통해 보도

### IMF 시절 '아버지 신드롬',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에세이도 인기

○ 보도에 따르면, 외환 위기로 인한 경기 한파가 몰아쳤던 1998년에는 출판계의 키워드가 '아버지'였으며, 소설 <아버지>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경제적 갈등과 가족 내 소외감을 느끼는 한국형 아버지들의 부정(父情)을 일깨워주는 도서들이 인기를 끌면서 '아버지 신드롬'으로 이어졌다고 설명

- 이 밖에도 1998년에는 법정 스님의 <산에는 꽃이 피네>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을 비롯, <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> <모리와 함께한 화요일> 등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에세이가 인기였으며, 희망을 잃지 않고 역경을 이겨 내어 자수성가하는 이야기를 담은 우화형 자기계발서도 관심

### 2008년 겨울 '어머니' 낙약함과 진솔함 담긴 소소한 위로

○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비롯된 경기 한파가 계속되며 힘들어지게 된 2008년 겨울 출판계의 키워드로 '어머니'가 등장했다고 보도

- 관련 소설은 엄마'가 해주는 소소한 위로를 담은 공지영의 <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>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가족간 갈등과 해소를 다룬 신경숙의 <엄마를 부탁해>

- 공지영의 소설은 화자로 등장한 위녕'이라는 딸을 대상으로 쓴 편지글 형식으로, 20살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딸에게 평범한 아이 엄마로서 조곤조곤 삶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내용

- 신경숙의 소설은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실종된 이후 가족들이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며 늘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줄 것 같은 존재였던 엄마를 더욱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내용